광주광역시 신안교~서림로 간 도로개설 추진

328억 투입… 내년 실시설계 완료

광주광역시는 신안동 등 구 시가지 활성화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신안교~서림로 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안동, 임동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열린 광주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설계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28억원을 투입해 북구 신안교에서 서림로까지 길이 620m, 폭 35m, 왕복 4~6차로의 규모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2021년부터 보상을 개시하고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 어장 정화정비 업체 일제 점검

선박 검사증서 유효기간 등 점검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어장 정화 정비 23개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도 본청에 등록된 4개 업체와 동부지역본부에 등록된 19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여수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선박 및 부선 검사증서 유효기간 ▲등록된 부선 계류 ▲적정한 기술인력 고용 ▲선박에 설치된 인양 장비 작동 상태 등 전반적 사항이다. 등록 기준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지도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어장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중대한 등록기준 미달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이번 점검 시 현장 실태점검으로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어장관리법 및 업무처리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지난 1일 함평군 해보면청년회는 청년회 사무실에서 전남서부보훈지청과 '따뜻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

함평군 해보면청년회-전남서부보훈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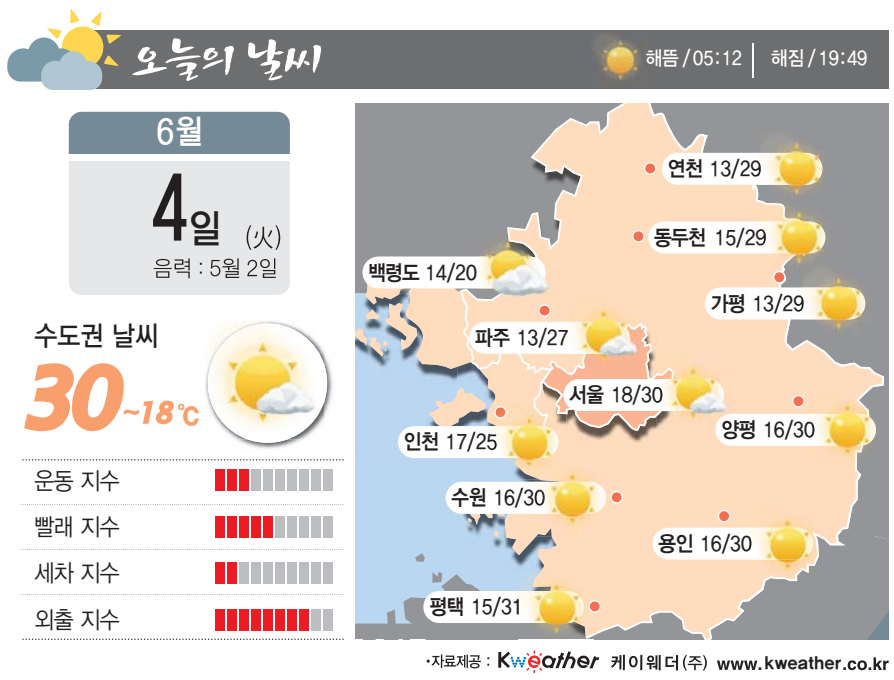
보훈가족 복지증진, 문화 확산 등 맞손

함평군 해보면청년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일 청년회 사무실에서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종술)과 '따뜻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훈가족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앞서 서부지청은 해보면 양파농가를 찾아 5,670㎡ 규모의 양파밭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본 협약식에서는 청년회 전직회장 및 회원들에게 '나라사랑 꿈나무 배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본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부지청은 청년회를 통해 보훈가족을 지속 보호·관리하게 되며, 청년회는 서부지청의 각종 보훈사업을 통해 지역보훈가족을 예우하게 된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서남 해안 섬부터 순천만습지·박물관까지…

'남도한바퀴'로 전남을 한 눈에

순천만습지

여름에 맞춰 코스 신설·조정
광주수영대회·무안공항 연계
외국인대상 특별상품도 운행

전라남도는 여름철 무더운 날씨 여건 등을 고려해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2019 남도한바퀴'의 일부 코스를 신설·조정해 섬과 숲, 박물관 등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곳을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오는 7~8월 개최 예정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동안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개별 여행객(FIT))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대상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을 운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여름상품은 서남해안의 섬과 해수욕장, 편백숲 길, 야경, 박물관, 전시관, 와인동굴, 사찰,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한 26개 코스로 이뤄졌다. 평일 3회, 토요일 8회, 일요일 9회 일정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신규 코스는 섬과 해양 연계한 것으로 신안 요트투어, 고흥 거금도유람선 코스, 1박 2일 체류형 코스, 역사·문화 코스 등 6개다. 조정 코스 20개소는 기존 봄철 관광지 노선 가운데 일부를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조정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연계 특별상품은 선수, 임원, 가족, 관람객을 위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당일코스 7개와 1박 2일 코스 2개로 구성됐다.

당일코스는 ▲국립광주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전남농업박물관을 운행하는 박물관 코스 ▲죽녹원-보성다원-무안회산백련지-신안 슬로시티 증도를 운행하는 자연생태 코스 ▲힐링&남도별미 코스 5개다.

1박2일 코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화순고인돌유적지-운주사-순천송광사-선암사-순천만습지-낙안읍성-해남 대흥사, 녹우당을 운행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코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담양 죽화경-소쇄원-구례 쌍산재-화엄사-고흥 힐링파크 쑥섬-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을 운행하는 민간·별서정원 2개로, 주말에 운영한다.

또한 무안공항 해외 정기노선 도착 시간과 연계해 관광지, 먹거리, 체험 등 외국인 선호도에 맞는 체류형 '외국인 대상 남도한바퀴' 특별상품도 운행한다. 오는 21일부터 운행 예정이다.

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지난 봄 기간 동안 평균 38명이 탑승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남도한바퀴 여행상품이 여름철에도 많은 사랑을 받도록 섬과 숲, 박물관, 야경 등 계절 맞춤형 관광지로 일부 조정했다"며 "남도한바퀴 특별상품의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와 무안공항을 통해 전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전남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주차난 해소'… 진주시, 주차공간 리모델링

혁신도시 주차실태조사 이달 마무리

진주시가 진주혁신도시 주차난에 팔을 걷어부쳤다. 오는 6월 말에 주차 수요 실태 조사를 마친 후 이르면 7월에 도시 전반의 주차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주차 수요 실태 조사를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7월에 개괄적인 주차 공간 확보 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충무공동, 초전동, 평거동 등 일부 지역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가득해 차량 통행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혁신도시 내 국방기술품질원 맞은편 에나로77번길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곳은 공기관 직원 및 민원인의 불법 주차가 오전부터 일반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충무공동의 경우 아직 상가가 전부 들어온 게 아니라서 공영 주차장 등 주차 시설을 어디에 얼마큼 갖춰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직접 나가면 인근 빌딩의 주차장은 비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에서 공터로 있는 사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 재산세 감면 등의 조건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아직 경제성을 이유로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주차 수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 공간이 충분한데 불법 주차가 심한 곳은 단속 인력을 늘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은 공영주차장 및 민간 유료 주차장 등 주차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남 진주=류광현 기자 news24@

울산박물관

'새유물 새전시' 개최

울산박물관은 '2019년 새유물 새전시'를 오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 간 박물관 내 역사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구입유물과 기증유물 등 두 가지 주제로 구성해 1부는 '조선의 멋, 묵란화'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묵란도' 3점을 전시하며, 2부는 '나의 이야기, 울산'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9명으로부터 기증받은 168건 765점 중 500여점을 선별해 전시한다.

/울산=최인락 기자 remark@

'산지폐기' 앞둔 무안양파, 판매 독려 나서

전남지방우정청-무안군청

전남지방우정청과 무안군청은 최근 생산량 과잉에 따른 양파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가을 위해 적극적인 판매 지원에 나선다.

전남지방우정청 전자상거래팀에서는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출하시기를 넘긴 양파를 '산지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전자상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국쇼핑을 비롯해 G마켓, 옥션, 11번가 등 5개 온라인쇼핑몰과 협력하여 햇양파 5kg(대) 1상자를 균일가 4,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무안군청과 협력을 통한 판매지원으로 양파 시장가격 안정화 및 수요촉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우정청장은 "이번 무안 농가 지원이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양수녕 기자 ysn6313@